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중국의 ‘일대일로’ 10년의 성과 및 평가

KIEP 북경사무소(kucho@kiep.go.kr, Tel: 86-10-8497-2870)



차 례

1. 배경
2. '일대일로' 추진 10년의 성과
3. '일대일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4. 중국 내 평가

주요 내용

■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2013년 카자흐스탄과 인도네시아를 순방하면서 일대일로 구상을 처음 제안함.

- 일대일로는 중국의 장기 국가 발전전략 구상 중의 하나로 중국 서부~중앙아시아~러시아~유럽을 잇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중국 남부~동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유럽을 연결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건설하는 것을 일컫음.
- 2023년 10월 중국 국무원은 일대일로 추진 10주년을 맞이하여 <일대일로 공동 건설: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을 위한 주요 실천> 백서를 발표함.
- 2023년 10월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개방과 포용, 상호연결, 공동 발전의 세계 구축>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함.

■ 일대일로 10년의 성과

- 일대일로 10년의 성과로는 △원활한 정책 소통 △효율적인 시설 연결 △ 무역 원활 △자금 융통 △민심 상통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중국은 다양한 국제기구 및 지역과 일대일로 협력 협정을 체결했고, 다양한 활동을 주최해 협력을 모색했음.
- 6대 경제회랑을 통해 일대일로 협력국가와 인프라 상호연결 구조를 구축함.
- 경제무역은 일대일로 건설의 핵심
- 일대일로 인문 교류 역시 중요한 협력 프로젝트 중의 하나임.

■ 일대일로 1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 '100년간 없었던 큰 변화'는 일대일로에 새로운 도전과 문제를 가져와 과거에 없던 경쟁에 직면하게 함.
- 향후 일대일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정교한 발전을 향해 가는 것이 중요

■ 중국 내 평가

-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백서에서 일대일로 고품질 공동 건설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추구한다고 밝힘.
- 일대일로는 민생이 근본적인 목표이고, 이를 통해 중국과 일대일로 협력국가가 함께 발전하고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
- 신화통신은 일대일로 공동 건설이 인류의 올바른 길이라고 자평함.

1. 배경

■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3년 9월과 10월 카자흐스탄과 인도네시아를 잇달아 순방하면서 일대일로 구상을 처음 제안했음.

- 일대일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시한 국가 발전전략 구상 중의 하나로 중국 서부-중앙아시아-러시아-유럽을 잇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중국 남부-동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유럽을 연결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건설하는 것을 일컫음.
-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공동 건설이 글로벌 다극화, 경제 세계화, 문화 다양화, 사회 정보화 추세에 부합하고, 개방형 지역협력 정신을 견지하며, 글로벌 자유무역체제와 개방형 세계를 수호하는 것에도 부합한다고 주장
- 또한 일대일로 공동 건설은 경제 요소의 질서 있고 자유로운 흐름, 효율적인 자원 배분 및 심층적인 시장 통합을 촉진하고, 연선국가 간 경제정책의 조율을 추진하며, 개방·포용·균형·보편적으로 유익한 지역 경제협력 구조를 공동으로 건설하는 것이 목표
- 2023년 6월 말까지 150여 개 국가와 30여 개 국제기구가 일대일로에 참여하고 있으며 3번의 국제협력 정상포럼 개최를 통해 200여 건의 협력 문서가 체결되어 수많은 프로젝트와 민생에 도움이 되는 '작지만 아름다운(小而美)' 프로젝트가 형성되었음.¹⁾
- 다만 최근 2023년 12월 이탈리아는 일대일로 구상에 참여한 지 4년 만에 공식 탈퇴했음.²⁾

■ 지난 2023년 10월 1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는 일대일로 추진 10주년을 기념하여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이 개최됨.

- 시진핑 국가주석은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참석해 〈개방과 포용, 상호연결, 공동 발전의 세계 구축〉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함.³⁾
- 시진핑 국가주석은 일대일로 협력 동반관계를 심화하고,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추진하며, 세계 각국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함.
- 일대일로 고품질 공동 건설을 지원하는 8가지 행동으로 △일대일로 상호연결을 위한 입체적 네트워크 구축 △개방형 세계경제 건설 지지 △실무협력 전개 △녹색발전 촉진 △과학기술 혁신 추진 △민간 교류 지원 △청렴결백한 노선 건설 △일대일로 국제협력 메커니즘의 보완을 제시함(표 1 참고).
-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10년간의 일대일로 성과를 소개하고, 일대일로 구상이 중국에서 시작되었으나 성과와 기회는 세계의 것이라고 밝힘.
- 시진핑 국가주석은 '평화 협력, 개방 포용, 상호 학습, 호혜 상생(和平合作、开放包容、互学互鉴、互利共

1) 「特别报道 | “一带一路”十年丰硕成果」, 『中国经济时报』(2023.10.16)

2) 「意大利退出“一带一路”? 外交部回应」, 『观察家网』(2023.12.07)

3) 「习近平出席第三届“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开幕式并发表主旨演讲」, 『第三届“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2023.10.18)

贏)’의 실크로드 정신이 일대일로 공동 건설에 있어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이며 이데올로기적 대립, 지정학적 게임, 집단적 정치 대립에 참여하지 않고 일방적인 제재와 경제적 압박, 디커플링에 반대한다고 강조함.

-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 정상들과 국제기구 정상들이 참석함으로써 중국 경제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인시켜주었음.
-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을 포함한 차이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왕이 외교부장, 허리핑 부총리 등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음.

표 1. 일대일로의 고품질 공동 건설 지원을 위한 8가지 행동

구분	주요 내용
일대일로 상호연결을 위한 입체적 네트워크 구축	- 중국-유럽 화물열차의 고품질 발전을 신속히 추진해 카스피해 횡단 국제 운송 회랑 건설에 참여하고, 중국-유럽 화물열차 국제협력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철로 및 고속도로 직통 운송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유라시아 대륙 물류 통로를 구축 - ‘실크로드 해운’ 항구무역의 일체화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새로운 육·해·공 실크로드 건설을 가속화
개방형 세계경제 건설 지지	- ‘실크로드 전자상거래’ 협력 선행지역을 조성하고, 더 많은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및 투자보호협정(IPA) 체결 - 제조업 분야 외국인 투자 진입 제한 전면 취소 - 높은 수준의 국제 경제무역 규범을 대조해 크로스보더 서비스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개방을 더욱 촉진하고, 디지털 제품 등의 시장 진입 확대는 물론 국유기업, 디지털 경제, 지식재산권, 정부 조달 등 분야에서 개혁을 심화 - 매년 ‘글로벌 디지털 무역 박람회’ 개최
실무협력 전개	- 랜드마크 프로젝트와 ‘작지만 아름답다(小而美)’ 민생 프로젝트 공동 추진 - 국가개발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융자 창구를 각각 개설하고, 실크로드 기금을 설립하여 시장화, 상업화 방식으로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지원 - 1,000개 소형 민생 지원 프로젝트를 시행해 ‘루반공방(鲁班工坊)’ 등 중국 국내의 직업 교육 협력을 추진하고, 일대일로 공동 건설 프로젝트와 참여자에 대한 안전보장을 강화
녹색 발전 촉진	- △녹색 인프라 건설·녹색 에너지·녹색 교통 등 분야의 협력 지속 심화 △일대일로 녹색 발전 국제연맹에 대한 지원 확대 △일대일로 녹색 혁신대회 지속 개최 △태양광산업 대화 및 교류 메커니즘 구축 △녹색·저탄소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일대일로 녹색 투자원칙을 이행하여 2030년까지 협력국을 대상으로 연인원 10만 명에게 교육 진행
과학기술 혁신 추진	- △일대일로 과학기술 혁신 행동계획 실시 △제1회 일대일로 과학기술 교류대회 개최 △향후 5년 내 각국과 공동 건설한 합동 실험실 100개로 확장 △각국 청년 과학자들의 중국 단기연수 지원 -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제안해 각국과 교류를 강화해 글로벌 인공지능의 질서 있고 건전하며 안전한 발전을 공동 추진
민간 교류 지원	- 일대일로 일대일로 협력국가들과 문명 대화를 심화하기 위해 ‘량주(良渚) 포럼’ 개최 - 이미 구축된 실크로드 국제극장, 예술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연맹을 기반으로 실크로드 관광도시 연맹 설립 - 실크로드 중국 정부 장학금 프로젝트의 지속 시행

청렴결백한 노선 건설	- △협력 파트너와 〈일대일로 청렴결백 건설로 인한 성과 및 전망〉 발표 △일대일로 청 렴결백 건설 고급 원칙 추진 △청렴결백 규범에 부합한 일대일로 기업의 평가시스템 구축 △국제기구와 협력해 일대일로 청렴결백 연구 및 교육 수행
일대일로 국제협력 메커니즘이 보완	- 일대일로 일대일로 협력국가들과 △에너지 △조세 △금융 △녹색 발전 △재해방지 △ 반부패 △싱크탱크 △미디어 △문화 등 분야의 다자협력 플랫폼 건설을 강화 -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개최를 지속하여 정상포럼 사무국을 설립

자료: 시진핑 국가주석의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기조연설을 바탕으로 정리

■ 2023년 10월 10일 중국 국무원은 〈일대일로 공동 건설: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을 위한 주요 실천〉 백서를 발표했음.⁴⁾

- 〈일대일로 공동 건설: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위한 주요 실천〉 백서는 지난 10년간 일대일로 공
동 건설에서 달성한 성과를 소개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일대일로 구상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여 더 많은 국가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발표함.
- ‘백서’는 일대일로 공동 건설이 인류 역사와 문명의 발전 성과인 고대 실크로드를 창의적으로 계
승하고 발전시키며, 새로운 시대정신과 인본주의적 성격을 부여해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을 위한
실천적 플랫폼을 제공했다고 평가
- 또한 지난 10년간 각국의 공동 노력을 통해 일대일로 공동 건설은 중국의 이니셔티브에서 국제
적 관행으로, 이념에서 행동으로, 비전에서 현실로 발전하는 등 확실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
인기 있는 국제 공공재이자 국제협력 플랫폼이 되었음을 강조
- 지난 10년간 일대일로 공동 건설은 관련 국가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경제 세
계화의 건전한 발전 촉진 △글로벌 발전 문제 해결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개선 등에 긍정적인
공헌을 함.
- 일대일로 공동 건설은 인류가 함께 현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고 인류 운명공동체가
자리잡을 수 있게 추진됨.

2. ‘일대일로’ 추진 10년의 성과

■ 일대일로 구상이 제안된 이후 중국은 고속 발전에서 고품질 발전으로 점차 전환했고, 공동 건설에 참여하는
국가도 계속 증가했으며, 양자간 무역·투자의 규모가 꾸준히 확대됨으로써 산업 사슬 및 공급망 협력 수준이

4) 『《共建“一带一路”：构建人类命运共同体的重大实践》白皮书（全文）』, 『环球网』(2023.10.10)

계속해서 높아졌음.⁵⁾

-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백서는 일대일로 성과로 △원활한 정책 소통 △효율적인 시설 연결 △원활한 무역 △자금 융통 △민심 상통을 제시함.⁶⁾
- 일대일로 공동 건설은 △도로, 철도, 항구 등 인프라 건설을 통한 연결(硬联通) △규정, 제도 등의 표준화를 통한 연결(软联通) △국가와 국민을 통한 연결(心联通) 등을 공동 구축하는 것을 일컬음.

■ 정책 소통(政策沟通)은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중대한 보증이 되었음.⁷⁾

- 전략적 연결과 정책 협조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음.
- 2016년 11월 제71차 UN 총회에서 193개 회원국은 만장일치로 총회 결의안에 일대일로 구상을 기재하기로 합의했고, 2017년 3월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일대일로 공동 건설 등을 통해 지역 경제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2344호를 통과시킴.
- 유엔개발계획(UNDP)과 세계보건기구(WHO)는 중국과 잇따라 일대일로 협력 협정을 체결함.
-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와 투자원활화협정(IFD)에 대한 문안 협상을 추진했고, 일대일로 투자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10여 개 국가 및 지역과 조정되고 통일된 투자관리 시스템을 구축함.
- 지역 및 다자관계 차원에서 일대일로 공동 건설은 △UN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년 어젠다 △2025 ASEAN 상호연결 총체규획 △ASEAN 인도-태평양 전망 △아프리카 연합(AU)의 〈2063년 어젠다〉 △EU·유라시아 상호연결 전략 등과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지역 통합 프로세스와 글로벌 발전을 지원함.
- 양자 관계 차원에서 일대일로 공동 건설은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연합 건설 △카자흐스탄의 ‘누를리 졸(Nurly Zhol)’ 신경제정책 △투르크메니스탄의 ‘실크로드 부흥’ 전략 △몽골의 ‘초원의 길’ △인도네시아의 ‘글로벌 해양 지지대(Global Maritime Fulcrum)’ 구상 △필리핀의 ‘BBM(Build, Better, More)’ 계획 △베트남의 ‘양랑일권(两廊一圈)’ 전략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제 재건 및 회복 계획’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회랑 개발 계획’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 등 많은 국가의 발전전략과 연계되어 있음.
- 정책 소통을 위한 장기 효과 메커니즘이 기본적으로 형성됨.
- 2017년 제1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는 29개 국가의 정상이 참석했으며, 140여 개국, 80개 이상의 국제기구 대표 1,600여 명이 참석해 5개 분야 279건의 실무 성과를 거뒀음.
- 2019년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는 38개 국가의 정상과 유엔 사무총장, IMF 총재 등 40명의 지도자가 참석했으며, 150여 개국, 92개 국제기구 대표 6,000명 이상이 참석해 6개 분야 283건의 실무 성과를 거뒀음.
- 다자간 협력은 계속해서 진전되고 있음.
-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기틀 하에서 중국과 협력 파트너는 철도, 항구, 에너지, 금융, 조세, 환경보호,

5) 「共建“一带一路”十年：进展、成就与展望」, 『改革』(2023.08.08)

6) 「《共建“一带一路”：构建人类命运共同体的重大实践》白皮书（全文）」, 『环球网』(2023.10.10)

7) 「《共建“一带一路”：构建人类命运共同体的重大实践》白皮书（全文）」, 『环球网』(2023.10.10)

재해방지, 싱크탱크, 미디어 등 20개 이상의 전문 분야에서 다자간 대화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했고, 참여 회원국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일대일로 공동 건설은 △중국-ASEAN(10+1) 협력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 △중국-아랍국가 협력 포럼 △중국-라틴아메리카공동체 포럼 △중국-태평양 도서국 경제 발전 협력 포럼 △중국-중부 및 동유럽 국가 협력 △세계경제포럼 △보아오(博鳌) 포럼 △중국 공산당과 세계 정당 지도자와의 정상 회담 등 중대한 다자간 협력 메커니즘 플랫폼과 계속해서 실무협력을 심화해 왔음.
- 규범 및 표준의 연계가 진전됨.
 - 표준화 협력이 계속 확대되면서 2023년 6월 말까지 중국은 파키스탄, 러시아, 그리스, 에티오피아, 코스타리카 등 65개 국가의 표준화 기구와 국제 및 지역 기구와 107개 표준 협력 문서를 체결하여 민간 항공, 기후 변화, 농업 식품, 건축 자재, 전기자동차, 파이프라인, 물류, 소형 수력 발전, 해양 및 측량 제도 등 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을 추진함.
 - 표준화 개요 정보는 149개 일대일로 협력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59개국과 6개 국제 및 지역 표준화 기구의 표준화 항목 정보에 대한 정확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공동 건설 국가(이하 '일대일로 협력국가') 간 표준 상호연결의 다리 역할을 해냈음.
 - 이 밖에도 약 1,400개에 달하는 국가 표준의 외국어 버전과 1,000개 이상의 산업 표준의 외국어 버전이 출시되었고, 2022년 5월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기구(AALCO)를 홍콩에 설립해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위한 다양한 분쟁 해결 방법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였으며, 22개 국가 및 지역의 국제 회계감사 규제 협력을 지속 강화해 국제 투자 및 용자 채널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하고 있음.

■ 인프라 연결(设施联通)은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최우선 분야로 '6개 회랑, 6개 노선, 다자 간 협력, 다수 항구 건설(六廊六路多国多港)'을 기본 구조로 삼아 전체 상호연결 구조를 구축함.⁸⁾

- '6대 경제회랑'은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 △새로운 유라시아 대륙교 경제회랑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경제회랑 △중국-인도차이나 경제회랑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회랑을 일컬음.
 -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은 △중국-러시아 헤이허(黑河) 대교와 통장(同江) 철도대교 개통 △중국-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동부 루트 공식 개통 △중국-몽골-러시아 중선(中线) 철도 업그레이드 및 발전 타당성 조사 공식 개시 등이 추진됨.
 - 새로운 유라시아 대륙교 경제회랑은 △세르비아-헝가리 철도의 베오그라드-노비사드 구간 개통 △부다페스트-클레비오 구간 선로부설 착공 △크로아티아 바다 횡단교인 펠예사 대교 개통 △쌍서도로(双西公路) 완공 △몬테네그로 남북 고속도로 개통 등이 추진됨.
 -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경제회랑은 △중국-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고속도로 운송 노선 정상 가동 △중국-중앙아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운영 △카자흐스탄 북카자흐주 곡물·석유 노선 운영 등이 추진됨.

8) 『《共建“一带一路”：构建人类命运共同体的重大实践》白皮书（全文）』, 『环球网』(2023.10.10)

- 중국-인도차이나 경제회랑은 △중국-라오스 철도 개통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개통 △중국-태국 철로 1기(방콕-나콘랏차시마 구간) 공사 개시 등이 추진됨.
-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은 △페샤와르-카라치(Peshawar-Karachi) 고속도로 △카라코람(Karakoram) 고속도로 2기 △라호르(Lahore) 메트로 오렌지 라인 완공 △사히왈(Sahiwal)·포트 카심(Port Qasim)·타르(Thar) 발전소 운영 △송전망 상업 운전 개시 △카롯(Karot) 수력발전소 상업 운전 개시 △라사카이(Razakai) 경제특구 개발 착수 등이 추진됨.
-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회랑은 △중국-미얀마 원유 및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통 △중국-미얀마 철로 뮤즈-만달레이(Muse-Mandalay)와 구간 타당성 조사 완료 △만달레이-차우크푸(Mandalay-Kyaukpyu) 구간 타당성 조사 개시 △중국-방글라데시 우호대교 △도하자리-콕스바자르(Dohazari-Cox's Bazar) 철로 건설 등이 추진됨.
- 중국은 아프리카와 협력해 몸바사-나이로비(Mombasa-Nairobi) 철로와 아디스아바바-지부티(Addis Ababa-Djibouti) 철로를 잇달아 개통해 아프리카 국가 전체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 통로를 조성함.
- 해상 상호연결 수준이 계속해서 제고되면서 일대일로 협력국가 간의 항만 운송 협력이 지속 심화되고 화물 운송 효율성이 크게 향상됨.
- 그리스 피레우스 항구(Port of Piraeus)의 연간 하역량이 500만 TEU 이상으로 증가하여 유럽에서 4번째로 큰 컨테이너 항구이자 지중해의 대표적인 컨테이너 항구로 부상
- 파키스탄 과다르 항구(The Gwadar Port) 공동 건설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고, 물류거점 및 산업기지라는 목표를 향해 착실하게 전진하고 있음.
- 미얀마 차우크푸 심해항(Kyaukpyu Deep Sea Port) 프로젝트는 현재 지질조사와 환경·사회 평가 등 사전 작업을 진행 중임.
- 스리랑카 함반토타 항구(Hambantota Port)의 연간 벌크 화물 하역량은 120.5만 톤으로 증가
- 이탈리아 와도 (Vado) 컨테이너 부두가 개장되면서 이탈리아 최초의 반자동화 부두가 됨.
- 나이지리아 레키 심해항(Lekki Deep Sea Port) 프로젝트가 완료 및 가동에 들어가 중부 아프리카 및 서아프리카에서 중요한 현대 심해항이 됨.
- '실크로드 해운' 네트워크가 계속해서 확장되면서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 '실크로드 해운' 노선은 전 세계 43개국 117개 항구에 도달했으며, 300여 개의 국내외 해운기업, 항구 기업, 싱크탱크 등이 '실크로드 해운' 연맹에 가입함.
- '해상 실크로드의 해양 환경 예측보장 시스템'은 일대일로 협력국가 100개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음.
- 항공 실크로드 건설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둠.
- 중국은 104개의 일대일로 협력국가와 양자 항공운송 협정을 체결하고 57개 일대일로 협력국가와 직항노선을 개통하면서 국제운송의 편의 수준을 계속해서 높임.
- 중국 기업은 파키스탄, 네팔, 토고 등 일대일로 협력국가와의 민간항공 인프라 분야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현지 민간 항공 사업의 발전을 지원함.
- 중국의 민간 항공 일대일로 협력 플랫폼은 2020년 8월 공식 설립되어 일대일로 협력국가와의 민간 항공 교류 협력 메커니즘과 플랫폼이 더욱 완벽해짐.

- 코로나 팬데믹 기간 허난성 정저우(河南郑州)-룩셈부르크로 대표되는 ‘항공 실크로드’는 대량의 방역 물자를 수송해 중국-유럽 간 ‘공중 생명선’ 역할을 했고, 글로벌 산업망 및 공급망 안정에 긍정적인 공헌을 함.
- 국제 복합운송 통로는 계속 확장되어 △중국-유럽 화물열차 △중국-유럽 육상 및 해상 고속선 △서부지역의 새로운 육상 및 해상 통로 △새로운 렌윈강-휘얼귀쓰(连云港-霍尔果斯) 유라시아 육상 및 해상 운송 등이 꾸준히 발전해 옴.
- 시속 120km의 속도로 운행되고 있는 86개 노선의 중국-유럽 화물열차는 유라시아 내지의 유럽 25개국 200개 이상의 도시를 통과하며 유라시아 대륙을 포괄하는 물류배송 네트워크를 구축함.
- 2023년 6월 말까지 중국-유럽 화물열차는 총 74,000대의 열차를 운행해 완성차, 기계설비, 전자제품 등 약 700만 TEU를 운송했으며, 상품의 총가치는 3,000억 달러를 초과함.
- 중국-유럽 육상 및 해상 고속선은 전통적인 해상 노선과 중국-유럽 화물열차에 이어 중국-유럽 간 세 번째 무역 채널이 되었음. 2022년 이 채널을 통해 운송된 총 컨테이너 물량은 18만 TEU를 넘겨 2,600대 이상의 열차가 운행함.
- 서부지역의 새로운 육상 및 해상 통로의 철도-해상 복합운송 화물열차는 중국 중서부 지역 18개 성을 운행하며 100개 이상 국가의 300여 개 항구로 화물을 운송하고 있음.

■ 무역 원활(貿易暢通)은 일대일로로 초점이자 다양한 국가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성장동력이 되고 있음.⁹⁾

- 무역과 투자 규모는 꾸준히 확대됨.
-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과 일대일로 협력국가 간 수출입 총액은 19조 1,000억 달러로 연평균 성장률 6.4%를 기록했고, 중국과 일대일로 협력국가 간 양방향 투자 누적액은 3,800억 달러(그중 대중 투자액은 2,400억 달러를 초과)에 달했으며, 일대일로 협력국가의 공사 프로젝트의 신규 체결액과 완성액은 각각 2조 달러와 1조 3,000억 달러임.
- 2022년 중국과 일대일로 협력국가 간 수출입 총액은 약 2조 9,000억 달러로 같은 기간 중국의 대외 무역 총액의 45.4%를 차지해 2013년보다 6.2%포인트 증가했고, 중국 민간기업의 일대일로 협력국가에 대한 수출입 총액은 1조 5,000억 달러를 넘어 같은 기간 중국과 일대일로 협력국가 간 수출입 총액의 53.7%를 차지함.
- 무역과 투자 자유화 및 편리화 수준은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음.
- 일대일로 협력국가와 공동으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보호하고, 상호 간 경제무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며 제도 연결, 기술 표준 조율, 검사 결과의 상호 확인, 공인인증서 네트워킹 등에서 긍정적인 진전을 이룸.
- 2023년 8월 말 중국이 제시한 <일대일로 무역 완화 협력 구상>에 80개 이상의 국가와 국제기구가 참여함.
- 중국은 △28개 국가 및 지역과 21개 자유무역협정 체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공식

9) 『《共建“一带一路”：构建人类命运共同体的重大实践》白皮书（全文）』, 『环球网』(2023.10.10)

발효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적극 추진 △135개 국가 및 지역과 양자 투자협정 체결 △112개 국가 및 지역과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 △14개국과 제3자 시장 협력 등을 체결함.

- 무역과 투자 플랫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 산업 협력이 더욱 진전됨.

- 일대일로 협력국가들과 공동으로 국제 생산능력 협력을 촉진하여 철강, 비철금속, 건축자재, 자동차, 엔지니어링 기계, 자원 및 에너지, 농업 등 전통산업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며, 디지털 경제, 신에너지 차량, 원자력 및 핵기술, 5G 등 신흥산업 분야의 협력을 모색해 상호 보완적 우위와 호혜 상생을 촉진함.
- 2023년 6월 말, 중국은 40여 개 국가와 생산능력 협력 협정을 체결했고, 중국 국제광업대회와 중국-ASEAN 광업협력 포럼 등은 일대일로 협력국가와 광업생산능력 협력을 진행하는 중요 플랫폼이 됨.
- 상하이협력조직의 농업 기술 교류 양성 시범기지는 일대일로 공동 건설에서 농업과학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국가 간 농업 분야의 경제무역 협력을 촉진함.
- 원자력 산업에 대해 중국은 △파키스탄의 카라치(Karachi) 원자력발전소 ‘화룡1호(华龙一号)’의 K2, K3 원자로 가동 개시 △카자흐스탄 우리빈 핵연료부품 조립공장 가동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중국-ASEAN 포럼 등을 추진함.
- 산업단지와 관련해 중국은 △중국-말레이시아, 중국-인도네시아 ‘양국쌍원(两国双园)’ △중국-벨라루스 산업단지 △중국-UAE 생산 능력협력 시범단지 △중국-이집트 TAIDA 그룹 수에즈 경제무역 협력단지 등을 발전시키고 있음.

■ 자금 융통(资金融通)은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하는 중요한 지주 역할을 함.¹⁰⁾

- 금융 협력 메커니즘은 점점 개선되고 있음.

- 중국개발은행은 △중국-중·동유럽 은행연합체 △중국-아랍국가 은행연합체 △중국-ASEAN 은행연합체 △한중일-ASEAN 은행연합체 △중국-아프리카 금융 협력 은행연합체 △중국-라틴아메리카 금융 협력 메커니즘 등의 다자금융 협력 메커니즘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2023년 6월 말까지 총 13개 중국자본은행이 50개 일대일로 협력국가에서 145개의 1급 기관을 설립했고, 131개 일대일로 협력국가의 1,770만 개 상점에서 유니온페이(UnionPay) 카드 서비스를 개설했으며, 74개 일대일로 협력국가에서 유니온페이 모바일 결제서비스를 오픈함.
 - 중국은 20개 일대일로 협력국가와 양자 간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하고, 17개 일대일로 협력국가에서 위안화 청산 계획을 확립했으며, 위안화 국제결제시스템의 참여기관, 거래 규모를 늘려 무역·투자 편리화가 효과적으로 증진됨.
 - 금융 규제 협력 및 교류는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음.
- 투자·금융 채널과 플랫폼은 계속 확장되고 있음.

10) 『《共建“一带一路”：构建人类命运共同体的重大实践》白皮书（全文）』, 『环球网』(2023.10.10)

- 중국은 실크로드 펀드에 출자했고, 관련 국가와 함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설립했음.
- 실크로드 펀드는 2023년 6월 말까지 약 220억 4,000만 달러 규모의 총 75개 일대일로 건설과 관련한 투자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고, 106개 회원을 보유한 AIIB는 투자 총액이 436억 달러에 달하는 227개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해 교통, 에너지, 공중 보건 등 국가 간 인프라 상호연결과 지속 가능한 경제, 사회 발전을 공동으로 이루기 위한 투자 및 금융 지원을 제공함.
- 중국은 △기존의 다양한 금융 메커니즘에 적극 참여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와 협력 각서(MOU) 체결 △다자개발금융협력센터(MCDF) 건설을 위해 국제금융기관과 협력 추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제3국 시장 투자 및 금융 협력 강화 △국제금융공사(IFC),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과 공동유자를 통한 자본 참여를 효과적으로 추진함.
- 중국은 △중국-유라시아 경제협력 펀드 △중국-라틴아메리카 협력 펀드 △중국-중·동유럽 투자 협력 펀드 △중국-ASEAN 투자 협력 펀드 △중국-라틴아메리카 생산능력 협력 투자 펀드 △중국-아프리카 생산능력 펀드 등 국제 경제협력 펀드 설립을 주도해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위한 투자와 금융 채널을 효과적으로 확대했음.
- 2022년 말까지 중국개발은행은 1,300여 건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금융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여 개발 금융의 주도적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함.
- 중국수출입은행의 일대일로 대출 잔액은 2조 2,000억 위안에 달했으며 130여 개 일대일로 협력국가와 물류 2조 달러 이상을 달성함.
- 중국신보(中国信保)는 수출신용보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일대일로 계획의 공동 건설을 위한 종합적인 보호를 적극적으로 제공함.

■ 민심 상통(民心相通)은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위한 사회적 기반으로, 교육·문화·스포츠·관광·고고학 등 분야에서 중국과 일대일로 협력국가 간의 협력은 계속 심화되고 있음.¹¹⁾

- 문화 관광 협력은 풍부하고 다채로움.

- 2023년 6월 말까지 중국은 144개 일대일로 협력국가와 문화 관광 분야에서 협력 문서를 체결했음.
- 중국은 일대일로 협력국가들과 협력 플랫폼을 공동 구축하여 실크로드 국제연극연맹, 박물관연맹, 예술제연맹, 도서관연맹, 미술관연맹을 설립했음.
- 중국은 계속해서 대외문화교류를 확대하여 ‘문화 실크로드’ 계획을 실행하고, ‘행복한 춘절(欢乐春节)’, ‘안녕! 중국(你好! 中国)’, ‘예술 실크로드(艺汇丝路)’ 등 중요 브랜드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있음.
- 중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그리스,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러시아, ASEAN 국가들과 △문화의 해, 관광의 해 공동 조직 △문물전시회, 영화제, 예술제, 도서 전시회, 음악 축제 등 활동 공동 조직 △도서, 방송, 라디오, 영화, TV 제작 등을 통해 일대일로 주제의 아시아 문화유산 보호를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은 44개국에 46개의 해외 중국문화센터를 설립했고(그중 32개는 일대일로 협력국가), 18개국에

11) 『《共建“一带一路”：构建人类命运共同体的重大实践》白皮书（全文）』, 『环球网』(2023.10.10)

20개의 관광 사무국을 설립했음(그중 8개는 일대일로 협력국가).

- 교육 교류 협력은 광범위하고 심층적임.

- 중국은 교육 분야의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일대일로 공동 건설 추진을 위한 교육 행동>을 발표함.
- 2023년 6월 말까지 중국은 45개 일대일로 협력국가 및 지역과 고등교육 학위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음.
- 중국은 실크로드 중국정부 장학금을 설립했고, 중국의 성(省),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고등교육기관, 과학연구기관에서도 일대일로 협력국가를 위한 장학금을 제정했음.
- 중국은 132개 일대일로 협력국가에 313개의 공자학원과 315개의 공자 교실을 설립하였고, '한어교(汉语桥)' 여름캠프 프로젝트는 100개 이상의 일대일로 협력국가에서 약 50,000명의 젊은이를 중국에서 공부하도록 초대했으며, 143개 일대일로 협력국가 10만 명의 중국어 애호가들이 온라인을 통해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중국 대학은 아시아, 아프리카 및 유럽의 20개 이상 국가에 있는 대학과 협력하여 수많은 루반공방(鲁班工坊)을 구축했음.
- 중국과 유네스코는 7년 연속 일대일로 청년 창의성 및 유산 포럼과 관련 활동을 개최했으며, 실크로드 청년학자 자금지원계획을 설립해 젊은 학자를 위한 24개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음.
- 중국 정부 원자력 장학금 프로그램은 이미 26개 일대일로 협력국가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관련 전공으로 약 200명의 석·박사생들을 교육함.

- 언론과 싱크탱크 간 협력이 지속 발전함.

- 국제 미디어 교류 협력은 꾸준히 발전하면서 일대일로 협력국가들과 '실크로드 텔레비전 국제협력 공동체(丝路电视国际合作共同体)'를 구축하기 위해 6회 연속 일대일로 미디어 협력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음.
- △중국-아랍국가 방송통신협력포럼 △중국-아프리카 미디어협력포럼 △중국-캄보디아 방송통신 정기협력회의 △중국-ASEAN 미디어협력포럼 △란창강-메콩강 시청주간(视听周) 등 양자 및 다자협력 메커니즘의 전개와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 아랍제국 방송연맹 등 국제기구의 활동을 수행함.
- 중국과 일대일로 협력국가의 언론은 국제 커뮤니케이션 '실크로드 상' 선정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일대일로 뉴스협력연맹을 설립했는데, 2023년 6월 말까지 연맹 회원은 107개국의 233개 미디어로 늘어났음.
- 싱크탱크 교류가 더욱 빈번해져 2018년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자문위원회가 설립되었음. 일대일로 싱크탱크협력연맹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라틴아메리카에서 총 122개국의 파트너를 육성했으며, 중국 국내외의 16개 싱크탱크가 공동으로 일대일로 국제싱크탱크협력위원회를 설립했음.

- 민간 교류가 계속 심화되고 있음.

-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서 중국 민간 조직의 국제교류촉진협회 등 중국 국내외 민간 조직은 공동으로 '실크로드 한 가족' 활동을 출범했고, 중국 국내외 민간 조직 간 약 600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300개 이상의 민생협력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란창강-메콩강 깊은 관계(深系澜湄)', '국제사랑소포(国际爱心包裹)', '광명의 길(光明行)' 등 브랜드 프로젝트를 진행함.
- 일대일로 협력국가의 60여 개 도시는 중국의 많은 도시와 1,000여 개의 자매 도시를 체결함.

- 72개 국가·지역의 352개 민간 조직은 실크로드 연선 민간 조직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해 500여 건의 민생사업과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등 일대일로 협력국가의 민간 조직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이 되고 있음.

표 2. 일대일로 10년의 주요 성과

구분		주요 성과
정책 소통	전략적 연결과 정책 협조	- 중국은 다양한 국제기구 및 지역과 일대일로 협력 협정을 체결했고, 양자 및 다자관계를 통해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연결을 추진함.
	장기 효과 메커니즘 형성	- 2017년 제1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은 140여 개 국가, 80여 개 국제기구 대표 1,600여 명이 참석해 5개 분야 279건의 실무 성과를 거둠. - 2019년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은 150여 개 국가, 92개 국제기구의 대표 6,000여 명이 참석해 6개 분야 283건의 실무 성과를 거둠.
	다자협력 진전	- 철도, 항구, 에너지, 금융, 조세, 환경보호, 재해방지, 싱크탱크, 미디어 등 20개 이상의 전문 분야에서 다자간 대화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했고, 참여 회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
	규칙 및 표준 연결성	- 2023년 6월 말까지 중국은 파키스탄, 러시아 등 65개 국가 표준화 기구와 국제 및 지역 기구와 함께 107개 표준화 협력 문서를 체결하여 민간 항공, 기후 변화, 농업 식품 등 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함. - 일대일로 표준 정보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고, 표준화 개요 정보는 149개 일대일로 협력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59개 국가와 6개 국제 및 지역 표준화 기구의 표준화 항목 정보에 대한 정확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대일로 협력국가 간 표준 상호연결의 다리 역할을 해냄.
인프라 연결	6대 경제화랑	- '6대 경제화랑'에는 △중국-몽골-러시아 △새로운 유라시아 대륙교,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중국-인도차이나 △중국-파키스탄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화랑이 있음.
	6대 도로	- '6대 도로'에는 철로, 고속도로, 해운, 항공, 파이프라인 등이 포함 - 중국-라오스 철도 완공 및 개통으로 라오스에 간접적으로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라오스의 총소득은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철도로 총 5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냈으며, 아프리카 몸바사-나이로비 철도는 동아프리카는 물론 아프리카 국가 전체의 심층적 발전을 촉진함. - 2023년 6월 말까지 '실크로드 해운' 노선은 전 세계 43개국 117개 항구에 도달했음. - 중국은 104개 일대일로 협력국가와 양자 항공운송협정을 체결하고, 57개 일대일로 협력국가와 직항 항공운송을 달성하는 등 국제 운송 편의 수준이 계속해서 향상됨.
	중국-유럽 화물열차	- 중국-유럽 화물열차는 일대일로의 핵심 프로젝트로 유럽 25개국 2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운행되고 있음. - 2023년 6월 말까지 총 74,000량의 중국-유럽 열차를 통해 약 700만 TEU를 운송해 총 화물 가치는 3,000억 달러를 초과함.
무역 원활	무역 규모 확대	-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과 일대일로 협력국가 간 수출입 총액은 19조 1,000억 달러로, 연평균 성장률 6.4%를 기록
	양방향	-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과 일대일로 협력국가 간 양방향 투자 누적액은 3,800

중국의 '일대일로' 10년의 성과 및 평가

	투자	억 달러였으며, 중국의 FDI는 2,400억 달러를 넘어섬.
	산업 협력 단지 건설	- 중국-벨라루스 산업단지 등 많은 산업단지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음. - 2023년 6월 말까지 중국은 40여 개 국가와 생산능력 협력을 체결 - 중국 기업이 일대일로 협력국가의 정부 및 기업과 협력하여 건설한 해외 산업단지가 70개가 넘음.
	제도 환경 건설	- 중국은 135개 국가·지역과 양자투자협정, 112개 국가·지역과 이중과세방지협약, 14 개국과 제3국 시장 협력을 체결하고, 35개 일대일로 협력국가와 ‘공인경제운영자 (AEO)’를 달성함.
자금 융통	자금 지원	- AIIB, 실크로드 펀드 등 다자간 금융협력기관이 잇달아 설립돼 일대일로 건설과 다 자 및 양자 간 상호연결에 강력한 금융 지원을 제공 - 2023년 6월 말까지 AIIB는 106개 회원을 보유해 투자액이 436억 달러에 달하는 227개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등 세계은행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의 국제 다자 개발기구가 됨. - 실크로드 펀드는 2023년 6월 말까지 총 75건의 투자 프로젝트를 체결했고, 투자 약정금액은 약 220억 4,000만 달러에 달함.
	금융 협력	- 2023년 6월 말까지 13개 중국 자본 은행이 50개 일대일로 협력국가에 145개의 1 급 기관을 설립했고, 131개 일대일로 협력국가의 1,770만 개 상점에서 유니온페이 카드 서비스를 개설함. - 74개 일대일로 협력국가에서 유니온페이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오픈함. - 중국은 20개 일대일로 협력국가와 양자 간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하고, 17개 일 대일로 협력국가와 위안화 청산 계획을 확립
민심 상통	문화 관광 협력	- 2023년 6월 말까지 중국은 144개 일대일로 협력국가와 문화 관광 분야 협력 문서를 체결함. - 중국은 44개국에서 46개의 해외 중국문화센터를 설립했고, 이 중 32개는 일대일로 협력국가에 설립됨. - 18개국에 20개의 관광사무국을 설립했으며, 이 중 8개는 일대일로 협력국가에 설립 함.
	교육 교류 협력	- 2023년 6월 말까지 중국은 45개 일대일로 협력국가·지역과 고등교육 학위 상호인 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
	민간 교류	- 일대일로 협력국가 내 60여 개의 도시는 중국의 많은 도시와 1,000여 개의 자매 도 시를 형성함. - 72개 국가·지역의 352개 민간 조직은 실크로드 연선 민간 조직 협력네트워크를 구 축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함.

자료: 중국경제시보(中国经济时报)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3. ‘일대일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 ‘100년간 없었던 대격변(百年未有之大变局)’은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에 새로운 도전을 가져오며 과거에 나타나지 않았던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¹²⁾

12) 『“一带一路”十周年：成就与挑战』, 『中美聚焦网』(2023.10.08)

- 기존의 일대일로 성과는 나날이 증가하는 국제 안보 리스크의 영향에 직면해 있음.
 - 일대일로 성과가 누적되고 성과의 규모(体量)가 계속 확대됨에 따라 일대일로 건설의 전반적인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점점 더 두드러진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
 - 잠재적인 안보 리스크는 테러리스트의 공격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복잡한 정치 및 정책 변화에도 영향을 받게됨.
 - 향후 일대일로 건설 과정에서 발전과 안보를 총괄하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가 큼.
- ‘서사적인 다툼(叙事之争)’은 일대일로의 향후 경과를 장기간 동반할 것
 - 세계 반중(反华) 진영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대일로를 비판해 왔으며, 국제적 발언권 경쟁과 인식의 다툼이 날로 치열해짐에 따라 향후 일대일로는 더욱 정치화될 가능성이 큼.
 - 향후 건설 과정에서 국제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국의 서사를 창출하는 것은 일대일로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열쇠가 될 것
- 일대일로는 이전과 전혀 다른 ‘동질적인 경쟁(同质竞争)’에 직면하게 될 것
 - 일대일로의 성과는 이미 관련 국가들에 의해 모방되고 있으며 심지어 악의적으로 경쟁하도록 만들었음.
 - 미국은 2022년 ‘글로벌 인프라·투자 파트너십(PGII)’ 구상을 출범시켰고, 최근 인도와 ‘인도-중·동 유럽 경제회랑’을 주도함.
 - 특정 프로젝트를 과학적으로 계획·실행하고, 국제사회가 미래 지향적인 방식으로 발전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끌며, 다른 국가의 이니셔티브와 연결을 모색하는 것은 일대일로가 향후 국가간 경쟁에서 승리하는데 필요한 요구사항이 될 것
- 코로나19와 지정학적 긴장은 △공급망 붕괴 △급격한 경기변동 △통화정책의 단기간 내 긴축·완화-긴축으로의 급격한 전환 등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일부 개발도상국들이 부채 함정에 빠질 우려가 커짐.¹³⁾
 - 이런 새로운 문제점은 일대일로 정책 입안자 및 참가자들로 하여금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금융 협력과 인프라 건설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도록 함.

■ 향후 일대일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정교한 발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더욱 필요¹⁴⁾

- 정부와 기업 간 조정은 개선해야 함.
 - 일대일로 공동 건설은 정부 부처가 다양한 국가 전략·정책을 조정하고 소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수성이 있지만, 협력과 프로젝트 건설의 기초는 여전히 시장 규칙을 기반으로 하며, 정부, 시장, 기업 주체의 조정 및 협력이 필요함.
 - 현재 일대일로 공동 건설에 대한 중국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단일하고, 정부 기관과 국유기업이 일대일로 국가 직접투자의 약 60%를 차지함.

13) 「CCG报告 | “一带一路”十周年：回顾、展望与多边化发展建议」, 『全球化智库CCG』(2023.10.17)

14) 「第一章 发展是共建“一带一路”的总钥匙」, 『中金点睛』(2023.07.25)

- 상위 500대 민간기업 약 60%는 일대일로 공동 건설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나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고, 해외투자 전반에 대한 조정이 부족하며, 초청국 정보에 대한 이해 부족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면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이 촉진되고, 인프라에서 더 많은 산업 분야까지 일대일로 공동 건설이 촉진될 것
- 저수익(Low Return) 투자 프로젝트는 부채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데, 이는 국제사회가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와 용자의 지속가능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문제임.
- 프로젝트 수행에서 현지 요구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일대일로 건설 후 투자 수익이 지속될 수 없어 부채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는 산업 발전과 연동되지 못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지 못함.
- 국제적인 프로젝트 건설은 종종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다국적기업과의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여 기술, 관리, 자원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인 이점을 실현하면 참여자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음.
- 프로젝트 투자와 용자에서 더 많은 국제기구와 다자간 금융기관이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부채 지속가능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
- 일대일로의 규칙 및 제도 시스템 구축에는 여전히 결함이 있음.
- 일대일로 국가는 서로 다른 국제 경제무역 규칙을 따르기에 규칙이 중복되어 시행하기 어렵거나 규칙이 누락되어 다루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부족함.
- 다자간 협력이 부족하면 다국적 건설사업이 직면한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대일로 공동 건설에 있어 다국적 기업,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기대해야 함.

4. 중국 내 평가

■ 중국 국무원의 일대일로 고품질 공동 건설이 안정적인 장기적인 발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힘.¹⁵⁾

- 지난 10년간 일대일로 공동 건설은 대세를 따르고 민심을 사로잡아 민생과 세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을 충분히 증명했음.
- 일대일로 공동 건설은 협력국가와 함께 현대화로 가는 길이자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강한 회복력, 강한 활력, 넓은 발전 전망이 있음.
- 새로운 혼란과 변화의 시대가 들어서면서 △강대국 간의 경쟁 가속화 △지정학적 긴장의 지속

15) 『《共建“一带一路”：构建人类命运共同体的重大实践》白皮书（全文）』, 『环球网』(2023.10.10)

△불확실한 세계경제 회복 △냉전 및 제로섬 사고방식의 범람 △일방주의, 보호주의, 패권주의의 만연 △포퓰리즘의 뚜렷한 고조 추세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이 가져온 치열한 경쟁 등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가 커짐.

- 따라서 각국은 대화를 통해 차이를 메우고, 분열을 반대하며, 협력 발전을 촉진해야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의미가 뚜렷해지고 전망이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강조
- 중국은 더 많은 국가와 국제기구가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임.
- 중국은 개발도상국이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고, 공동 발전에 도움이 되는 모든 조치를 통한 상호연결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함.
- 일대일로 고품질 공동 건설의 모든 협력국가는 동등한 참여자이자, 공헌자이자, 수혜자임.
- 중국은 일대일로 협력국가와 함께 신뢰를 강화해 계속해서 '상생·공동건설·공유(共商、共建、共享)'의 원칙을 통해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국제협력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 중국사회과학원 셰리(薛力) 교수는 일대일로 구상이 일대일로 협력국가와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오고 '민심 상통'을 촉진해 인류 운명공동체 이념의 확산에 기여했다고 평가¹⁶⁾

-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을 추진할 때 일방적인 지도나 명령을 내리지 않고 공동의 발전 기회를 모색해 왔음.
- 중국은 공동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에 따라 적절한 정책을 적용(因国因人施策)'하는 전략을 채택했고, 이를 통해 일대일로 협력국가의 국민은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진심으로 도움을 준다'라는 문화적인 느낌을 받게 됨.
- 다양한 문명이 공존하는 현 세계에서 '민심 상통'을 이루는데 기여함.
- 일대일로 구상은 인프라 건설을 포함한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에도 중점을 둠.
- 중국 문명의 독특한 특징은 강력한 포용성인데, 이러한 포용성은 타인에게 일관성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기반으로 함.

■ 중국 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원 쉬친화(许勤华) 교수는 일대일로가 △발전 문제 해결 △녹색 협력의 발전 촉진 △다분야 협력을 통한 일대일로 협력국가의 개발 동기 자극 △지역 주민에 대한 혜택 제공 △지역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발전을 촉진 등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힘.¹⁷⁾

- 일대일로는 글로벌 공감대를 수립하고, 국제협력, 녹색 혁신, 지속 가능한 발전, 문화 교류 등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변화시켰으며, 일대일로 협력국가의 막대한 발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함.
- 협력국 간 무역을 더욱 깊고 폭넓게 만들 수 있음.

16) 「专家谈“一带一路”倡议十周年：体现中国高水平制度型开放」, 『光明网』(2023.10.16)

17) 「专家解读“一带一路”倡议十周年：弘扬丝路精神，坚守成功之道」, 『中国新闻网』(2023.10.17)

- 시대적 요구에 더욱 초점을 맞춘 혁신적인 교류 추진
- 각 문명의 특성을 부각할 수 있는 문화 교류
- 신시대 중국특색의 대국외교의 최상위 설계로서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려면 다양한 초점이 필요하며 일대일로 구상의 공동 건설이 중요한 출발점이 됨.
- 일대일로는 공동 건설을 강조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목표는 민생 개선
- 지난 10년간 중국은 일대일로 협력국가의 민생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는 동시에 청정에너지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수많은 ‘작지만 아름다운’ 프로젝트와 ‘아름답지만 유익한(美而惠)’ 프로젝트를 창출해 일대일로 협력국가의 생산력을 크게 늘림.

■ 일대일로 공동 건설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성과와 정기적인 이익을 도출하여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함.¹⁸⁾

- 일대일로 공동 건설은 첫 번째 변영의 10년을 거쳐 다음 발전단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
- 일대일로 공동 건설에 대한 국제협력을 계속 심화하고, 일대일로 공동 건설에서 더 높은 품질과 수준의 새로운 발전을 환영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개방, 포용, 상호연결, 함께 발전하는 세계를 건설하여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을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임. **KIEP**

18) 『新华社评论员：共建“一带一路”走的是人间正道』, 『新华社』(2023.10.19)

[참고자료]

1. 중문 참고자료

- 「特别报道 | “一带一路”十年丰硕成果」. 2023. 『中国经济时报』(10. 16).
- 「意大利退出“一带一路”? 外交部回应」. 2023. 『观察者网』(12. 7).
- 「习近平出席第三届“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开幕式并发表主旨演讲」. 2023. 『第三届“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10. 18).
- 「《共建“一带一路”：构建人类命运共同体的重大实践》白皮书（全文）」. 2023. 『环球网』(10. 10).
- 「共建“一带一路”十年：进展、成就与展望」. 2023. 『改革』(8. 8).
- 「“一带一路”十周年：成就与挑战」. 2023. 『中美聚焦网』(10. 8).
- 「CCG报告 | 《“一带一路”十周年：回顾、展望与多边化发展建议》」. 2023. 『全球化智库CCG』(10. 17).
- 「第一章 发展是共建“一带一路”的总钥匙」. 2023. 『中金点睛』(7. 25).
- 「专家谈“一带一路”倡议十周年：体现中国高水平制度型开放」. 2023. 『光明网』(10. 16).
- 「专家解读“一带一路”倡议十周年：弘扬丝路精神，坚守成功之道」. 2023. 『中国新闻网』(10. 17).
- 「新华社评论员：共建“一带一路”走的是人间正道」. 2023. 『新华社』(10. 19).

자료 정리: 중국 칭화대학교 석사과정생 조동진
(cdj0306@naver.com)